



# 언론보도

고향신문 지역사회 7면  
2014. 10. 02. (목)

담당부서	국립영덕해양환경체험센터 고객지원부
담당자	담당 신호진 (054-730-8556)
■ 총 1쪽	■ www.nymc.or.kr
작성자	신호진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해양지식과 우정을 동시에 쌓는다!

29일부터 2박 3일간 모라중학교 학생 대상 체험활동 진행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야외공원에서 부산 모라중학교 학생들이 '해박엔티어링' 프로그램 중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원장 유홍룡, 이하 해양센터)는 부산 모라중학교 교장 박경산, 이하 모라중) 학생 260명을 맞이해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해양체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해양체험과 더

불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키우고, 사회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해 해양을 알아가는 '해박엔티어링 프로그램'은 팀별 미션을 통해 독도 및 해양의 현 상황

유익한 해양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단순히 해양지식만 쌓고 가는 기회가 아니라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 과정을 몸으로 익혔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3년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시설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양센터는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해양 특성화 캠프, 그리고 취약계층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등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너 나야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끼를 무대에서 선보이며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해양센터 유홍룡 원장은 "이번 부산 모라중학교 체험은 청소년 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안전하고